# 일체지가 마하대법왕이다

〈一切智〉 〈摩訶大法王〉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㉘ 삼지설(三智說)

"이 몸의 여러 근(根)에 대하여서는 분별을 내어 생각하되, 지금 있는 법이 망가지는 것만 보고,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것은 보지 못하므로 단견을 내나니,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탓이며, 마음이 서로 계속하는 데 대하여서는 캄캄하여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고, 잠깐 사이에 의식(意識)의 경계를 알지 못하므로 상견을 내는 것이니,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탓입니다.

이렇게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것이 저 참뜻에는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여 잘못된 생각으로 분별하되 단(斷)이라 하거나 상(常)이라 합니다.

뒤바뀐 중생들은 5수음에 대하여 항상함이 없는 것을 항상하다고 생각하며,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며,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며, 부정(不淨)한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체 아라한·벽지불들의 청정한 지혜를 가진 이도 일체지(一切智)의 경계와 여래의 법신에 대하여는 본래부터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를 세 가지로 말하는 삼지설(三智說)이 있다. 이 삼지설은 경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일체지(一切智)와 도종지(道種智)와 일체종지(一切種智) 세 가지를 말한다. 사람에 따라 눈의 시력 차이가 있는 것처럼 수행의 정도에 따라 지혜 도수(度數)가 다르다는 것이다. 일체지는 일체법의 총상(總相)을 아는 지혜로 그림을 그릴 때 전체의 구도를 잡는 것과 같은 지혜를 말한다. 번뇌가 현저히 줄어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공(空)하다는 것이 실감된다고 한다. 이런 경지의 지혜는 성문과 연각 곧 이승(二乘)들의 지혜라고 한다. 도종지는 일체법의 개별적인 도법을 아는 지혜로 보살이 중생을 교화할 때 쓰는 지혜라 한다.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도의 종류와 그 차이를 두루 아는 지혜로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여 얻는 지혜라고 하기도 한다. 일체종지는 총상(總相)과 별상(別相)을 다 같이 통달한 부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런데 때로는 일체지를 일체종지로 같이 써서 부처님 지혜를 말하기도 한다.

사찰에서 새벽예불 시 행선축원(行禪祝願)에 '구경원성살바야(究竟願成薩婆若)'라는 송구가 있다. "구경에 살바야를 이루기 원하옵니다"라는 말인데 이 살바야(薩婆若)라는 말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아는 부처님의 지혜를 뜻하는 말이다. 범어 어원은 사르바즈나(sarvajna)인데 번역하면 일체지 혹은 일체종지이다. 불교는 진리에 대한 무지를 고통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혜가 강조된다.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등장한 경전이 반야부 경전이다. 반야(般若)라는 말이 경전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반야의 지혜를 내세운 것이 대승불교의 출발점이 되었다. 대승의 이상적인 수행자상으로 등장한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닦는 수행자이다. 물론 육바라밀 전체를 아울러서 보살의 수행 덕목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야바라밀을 닦는 이를 대승의 수행자로 보았다. 반야바라밀이 육바라밀의 마지막에 나오는 바라밀이지만 반야바라밀이 보시나 지계, 인욕, 정진, 선정바라밀을 떠받치고 있는 바라밀이다. 선종의 선수행에도 '반야바라밀다'라는 말이 자주 쓰였다. 〈육조단경〉에 설해진 혜능대사의 법문을 혜능 자신이 직접 반야바라밀다 법문이라고 밝힌 말도 있다. 그래서 대승의 수행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마하를 붙여 마하반야바라밀이라 하기에 이르렀고 부처님을 '마하대법왕'이라 하였다. 이른바 부처를 심왕(心王)으로 보고 한 말이다. 이런 4구송도 있다.

마하대법왕(摩訶大法王) 마하대법왕은

무단역무장(無短亦無長)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네

본래비조백(本來非皂白) 본래 검거나 희지도 않으면서

수처현청황(隨處現靑黃) 곳을 따라 푸르고 노란 색을 나타내도다

〈승만경〉의 내용을 여래장사상이라고 요약해 말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마하반야바라밀법이다. 모든 부처님의 법문이 지혜를 종(宗)으로 하는 반야법문이기 때문이다. 반야가 바로 깨달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최고의 지혜이고, 도(道) 그 자체요, 부처 그 자체다. "어떤 이치도 아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도 없는 것을 반야라 한다"고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 사종염불, 진여본성 깨닫는 수행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㊿①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첫 번째 칭명염불(稱名念佛)은 〈문수반야경〉에 의거한 염불 수행입니다. 〈문수반야경〉에서 이르기를 "일행삼매(一行三昧)가 있는데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삼매를 닦는 사람이 속히 부처님의 보리를 얻어 삼매에 들어가고자 하면 마땅히 한가하고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모든 어지러운 생각을 버려야 하고, 어떠한 상황을 취하지 말고 마음을 한 부처님께 집중하여 오로지 명자(名字)를 부르며,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 바로 향하고, 능히 한 부처님을 염념(念念)에 상속하면 곧 염 가운데 능히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 한 부처님의 공덕이 무량무변한 것이 일체 부처님의 공덕과 둘이 아님을 염하라.

이와 같이 다하여 항하사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법계가 차별상이 없는 것을 알면 아난과 같은 총지다문(摠持多聞)의 변재(辯才)도 백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설한 것에 근거한 염불수행법입니다.

두 번째 관상염불(觀像念佛)은 〈대보적경〉에 의거한 염불방법으로, 부처님을 흙으로 만들었거나 그림으로 그린 부처님의 형상을 관하는 것입니다.

〈대보적경〉에서 설하기를 "부처님의 인행시(因行時) 가운데 대정진보살로 있었을 때 비구가 그린 부처님의 형상을 보고 발심하고 출가하여 모직물에 그린 불상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 관찰하였다. 이 그린 불상을 관찰하여 여래와 다르지 않게 하여 다섯 가지 신통을 성취하였고, 보광삼매(普光三昧)를 얻어 시방의 부처님을 친견하였다."라는 가르침에 근거한 염불 방법입니다.

세 번째 관상염불(觀相念佛)은 부처님의 80종호의 공덕상을 염하는 수행법입니다.

관상염불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하나는 부처님의 80종호 중 한 가지 상(一相)을 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처님의 전신을 관하는 수행법입니다.

네 번째 실상염불(實相觀念佛)은 법신염불(法身念佛)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수행법은 자신이나 일체법의 진실한 자성을 관하는 수행입니다.

〈문수반야경〉에서 설하기를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不生不滅),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不來不去), 이름도 아니고 상도 아닌(非名非相), 이것을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

스스로 몸의 실상을 관하는 것과 같이 부처를 관하는 것도 또한 이렇다."라는 가르침에 의거하여 실상염불이 탄생하였습니다.

불자 여러분! 앞에서 열거한 종밀 스님의 사종염불(四種念佛)은 근기에 따라 점차(漸次)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얕은 수행[淺行]에서 염불수행을 시작하여 점차(漸次)로 익혀 깊은 수행인 심행(深行)에 이르고, 최후에는 실상염불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밀 스님은 '칭명염불(稱名念佛)', '관상염불(觀像念佛)', '관상염불(觀相念佛)' 등을 얕은 수행으로 보고, '실상염불(實相念佛)'을 관하는 것을 깊은 심행(深行)의 염불수행이라고 판단하여 이 실상염불을 가장 묘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종염불 수행은 극락왕생을 바라는 염불수행이 아니라 일행삼매나 깨달음에 목적을 둔 수행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밀 스님이 주장하는 사종염불은 한마디로 진여본성을 깨닫기 위한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㉘ 새김의 토대에 대한 경 2

## 물질은 누구의 것이 될 수 없다

**"'물질은 이와 같고 물질의 생성은 이와 같고 물질의 소멸은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안다.**

**'느낌은 이와 같고 느낌의 생성은 이와 같고 느낌의 소멸은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안다.**

**'지각은 이와 같고 지각의 생성은 이와 같고 지각의 소멸은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안다.**

**'형성은 이와 같고 형성의 생성은 이와 같고 형성의 소멸은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안다.**

**'의식은 이와 같고 의식의 생성은 이와 같고 의식의 소멸은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몸으로 괴로움을 겪는다. 재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몸이 겪는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고통은 다를 것이라 예측하겠지만 사실 똑같은 괴로움을 겪는다. 부처님은 이것을 여덟 가지 고통이라 말씀하셨다. 이 여덟 가지 고통은 탐욕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다. 물질인 몸은 태어나면서 저마다 다른 조건을 가진다. 각기 다르게 주어진 조건을 '탐욕이 많다' 혹은 '탐욕이 적다'라고 말 할 수 없다. 평생 열심히 일하여 재물을 모은 사람을 탐욕스럽다고 할 수 없고, 일을 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재물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탐욕이 많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바르게 보면 탐욕은 물질에 대한 아상(我相)에서 생긴다. 아상의 개념으로 나의 것이 생겨 물질에 대한 애착이 생겨나고, 갈애함으로써 탐욕이 일어나는 것이지, 물질의 양과 탐욕은 상관없다.

물질은 누구의 것이 될 수 없는데,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고통이 동반된다. 생(生), 노(老), 병(病), 사(死),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오음성고(五陰盛苦), 이 여덟 가지 괴로움도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라고 하여 고통이 일어난 것이지, 그 여덟 가지가 괴로움은 아니다. 괴로움을 벗어난다고 생각하겠지만, 괴로움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괴로움을 벗어난 사람을 찾는다면, 아마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다. 벗어난다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이 개념에 갇혀 있게 되면 벗어날 수 없으니, 벗어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살피어 봄의 시작이 '물질은 이와 같고'이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다. 물질을 분별할 수는 없다. 분별심이 생기는 것은 '나'라는 개념 때문이지만, 그 개념에도 옳고 그름은 없다. 바르게 보는 법을 듣지 못하였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지금 물질을 바르게 보는 법을 일러 주고 계신다. 물질을 분석한다고 물질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질의 본질은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없다. 이름 붙이고 나의 것이라 명명한다고,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지 못함을 알아야 '물질은 나다'라는 혼돈에 빠지지 않는다. 무엇이 '이와 같다'는 것에는 진실도 거짓도 없이 빠르게 흐르는 허상만이 존재할 뿐이다. '물질은 이와 같고'는 소유의 대상이 아님을 말한다.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물질이 고통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나머지 느낌, 지각, 형성, 의식도 고통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오온은 지어온 그대로 있다. 지어옴의 많고 적음 없이 물질은 '이와 같고'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면, 지어옴의 좋고 나쁨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만사에 무게가 없다.

물질의 본질은 변함없었는데, 변하는 내 마음 보지 못하고
탓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내 마음대로 고정하려고 했네.
'이와 같다' 여기에 더 이상 무엇으로 평을 하겠는가!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머물 곳 없는데
물질이 '이와 같다'이면 또한 보는 마음도 '이와 같다'일 것이니
다시 분석하여 알아낼 것이 어디 있겠는가!

〈(사)여시아문 선원장〉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